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가르침을 바로잡으신 예수님(9)

- 읽을 말씀 마 5:48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빌립보서 3장 15절을 근거로 완전을 부정하는 견해는 틀린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㉔ 완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거의 모든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완전을 본문과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온전한 완전을 떠올립니다. 즉각 그들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가 있어! 그러니 이 땅에서 완전은 불가능해!’ 라고 속단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완전은 당연히 이 세상에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요구한 완전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맞지만,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완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땅에서 도달 가능한 완전과 타락이 불가능하고 그 수준이 하나님 같은 이 땅에서 도달 불가능한 완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은 전자입니다. 이런 완전이 어떤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 본문에 집중해서 문맥을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문맥에 의해 자연스럽게 완전에 대한 두 가지 의미가 떠오릅니다.

㉕ 하나님을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라!

이것이 완전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하라는 것은 마지막 반제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완전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뿐 아니라 사랑의 범위를 넓혀서 하나님처럼 원수와 핍박자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본래, 완전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

령이기 때문입니다(마 22:37-40). 율법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사람에게 대한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게 되어 있고, 그것이 완전입니다. 따라서 진실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완전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랍비들은 둘째 계명을 왜곡하여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습니다(마 5:43).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44절)고 가르치심으로 이것을 바로잡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완전입니다.

한편, 완전은 계명을 하나 하나 다 지키려는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참조, 갈 3:10). 그런 노력이 필요 없다거나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완전해지려면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계명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지 않고(요일 5:3), 바울의 말대로 모든 계명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남을 사랑할 때 율법을 다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롬 13:8-10).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③ 예수님이 완전케 한 계명들을 온전히 지켜라!

완전은 사랑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듀웰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에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의 뜻이나 지혜나 말이나 행동에 완전해질 수 없다. 오직 하나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다.”라는 독특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른 견해가 아닙니다. 성경은 사랑과 행실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합니다(요 14:15, 요일 5:3, 롬 13:10). 때문에 완전은 단지 사랑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웃과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완전의 특성은 본문의 문맥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완전하라는 명령은 마지막 반제의 결론일 뿐 아니라 21-48절 전체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모든 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명령은 마지막 반제뿐 아니라 모든 반제의 결론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완전은 단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섯 가지 계명을 설명해주신 그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여섯 가지 반제는 예수님이 율법의 계명들의 의미를 온전히 드러내시고 완전케 하신 것들이며(마 5:17). 그 결론은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은 바로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계명들을 완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은 21-48절에서 설명한 여섯 가지 계명들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21-48절에서 십계명의 온전한 의미를 차례로 설명하지 않고 여섯 가지만 설명하신 이유는,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계명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면 나머지 계명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섯 가지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계명들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완전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이 율법주의가 요구하는 완전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주의가 요구하는 완전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완전은 이런 완전이 아니라, 때로 실수할 수도 있는 완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변치 않는 한, 때로 아주 예외적으로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반문할지도 모르지만 그런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였던 노아가 훗날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술 취했으니 그 후로는 더 이상 완전한 자가 아닐까요? 성경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가 완전했다는 것은 그가 죽은 지 오랜 후에 모세가 계시를 받아 쓴 것인데 완전한 자라고 평했습니다(창 6:9). 노아가 죽은 지 더 오랜 후에 쓴 에스겔서에는 가장 흠이 없고 완전했던 다니엘, 율과 함께 구약의 3대 의인으로 노아를 지목했습니다(14:14, 20). 그런데 노아가 첫 번째로 들어간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노아를 완전한 자로 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완전을 복음적인 완전이라고 부릅니다.

요일 5:18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 말씀은 거듭난 자가 도무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버려서 습관적인 죄가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죄를 짓지 않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완전이 이와 유사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완전은 습관적인 죄가 없는 것과는 다릅니다. 완전에 도달한 자들은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수준을 넘어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몸의 구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드물게 그리고 아주 예외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완전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요구하는 완전과 다른 복음적인 완전입니다. 그러므로 완전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성경뿐 아니라 교회사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완전에 도달한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고전 2:6)라고 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문에서 누구에게 온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위시한 사도들뿐 아니라 거기에 모인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도 완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또한, 바울이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평범한 일반 성도들입니다(골 1:28). 예수님처럼 바울도 평범한 성도들이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고 그것을 목표로 사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완전을 실제적인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향해 부단히 달려가는 우리가 됩시다.

● 나눔과 적용

예수님이 요구하신 완전은 하나님을 본받아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며 예수님이 완전케 한 계명들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완전케 하신 계명들을 제대로 알고 실천해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알아갈 때 완전을 향한 초점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나누어 봅시다.